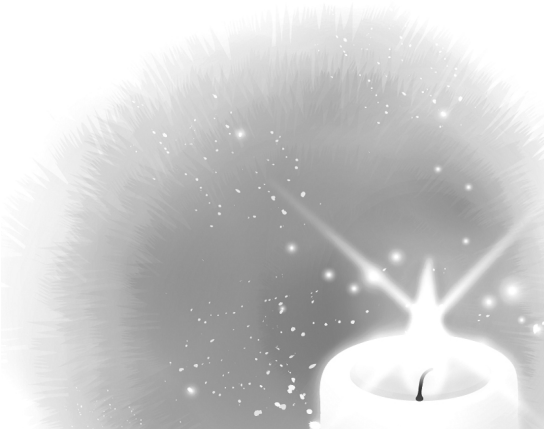
성경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
The Importance of Bible Education*

임 영 효**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141
2. 성경교육의 필요성 | 142
3. 성경의 독특한 역할 | 156
4. 성경의 독특한 권위 | 162
5. 성경의 사역 | 168
6. 성경교육의 목표: 선한 사역을 위한 온전한 구비 | 180
7. 결론 | 185



요약

성경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성경교육의 필요성과 성경교육의 내용인 성경 자체의 독특한 역할과 독특한 권위와 그 성경이 행하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며, 성경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함을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상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도외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주어졌던 것을 또한 성경이 깨우쳐 주고 있다.

참으로 성경교육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요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명령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열방을 제자삼는 선교사역의 완성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마 28:19-20). 따라서 성경교육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아니 주님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적인 책임이요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진지한 성경교육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성경교육대신 얕은 통속 심리학, 자기계발 훈련, 흥미위주의 자극제, 각종 오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성경적인 기독교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성경교육을 회복하는 데 있다. 성경교육이 없으면, 교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요약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칠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진장의 진리를 계속하여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성경교사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0, 27)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므로 말씀 양육사역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사역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이토록 기독교회가 성장한 시기에도 권면이나 교훈이 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의 동인이 되는 성경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권면도 받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는다. 권면과 교훈이 거절되면 어느덧 기독교회는 쇠약해지고 만다.

결론적으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 7:10)는 이러한 결심이 오늘날의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결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나라 확장과 복음사역에 놀라운 진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

* 본 논문은 2013년 고신대학교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고신대학교 신학과(Th. B.)를 거쳐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 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 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 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 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약

The Importance of Bible Education

- based on 2 Timothy 3:15-17 -

주요어

성경교육, 영적 성장, 성경의 영감, 구원, 성화, 성경의 사역

Abstract

The Importance of Bible Education

Prof. Dr. Young-Hyo Im

This paper deals with the importance of Bible education, that is, the necessity of Bible education, the unique role and authority of Bible itself, the important work of Bible, the purpose of Bible education based upon 2 Timothy 3:15-17.

The scripture teaches that the Bible education is God's plan and order for the glory of God, the happiness of the chosen people. Also the scripture reminds us that when His people neglected this solemn order of God, they fell into the severe sufferings and adversity.

Thus the resurrected Lord in the Great Commission sai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Matt. 28:19-20). This means that the missionary work will be finished through the Bible education. Therefore, the Bibl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and task for the Lord's church and His people which should be done continually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Unfortunately, these days the sincere Bible education is weakened and disappeared in the Christian community. In order to stand up in the biblical christianity, the Bible education should be restored. If there is no Bible education, the church will pay the price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urch ministry is not the mere numerical growth but to make the mature disciples of Jesus Christ. The spiritual growth of the church will be accomplished when the word of God is sincerely taught by the workers of the word.

Thus the contemporary Christians should preserve the truths of the word well and at the same time make effort to teach them continually. Also the contemporary Bible teachers should do their best to confess like the apostle Paul,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Acts 20:27).

In conclusion,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and observance of the Law of the Lord, and to teaching its decrees and laws in Israel"(Ezra 7:10). When this devotion will be the same act of today's Christians, there will be an enormous progress of the kingdom of God and Gospel ministry.

Keywords | Bible Education, Spiritual Growth,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Salvation, Sanctification, the Work of Scripture

1. 서론

구약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롬 4:11).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과 그의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므로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은 받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좇아 그의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친 결과로 그의 후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마침내 그의 자손으로 메시야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행 13:22-23).

이처럼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상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신 6:1-2, 8:1, 6, 10:12-13). 그러나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도외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주어졌던 것을 또한 성경이 깨우쳐 주고 있다(대하 36:11-21, 렘 6:8, 8:9, 42:1-44:30).

참으로 성경교육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요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명령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열방을 제자삼는 선교사역의 완성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마 28:19-20). 따라서 성경교육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아니 주님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적인 책임이요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의 복음적 개혁주의 신앙의 저명한 강해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 Boice)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전한 성경교육보다 신자의 성장과 교회의 건강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진지한 성경교육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성경교육대신 얕은 통속 심리학, 자기계발 훈련, 흥미위주의 자극제, 각종 오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3)]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성경교육의 필요성과 성경교육의 내용인 성경 자체의 독특한 역할과 독특한 권위와 그 성경이 행하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며, 성경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함을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경교육의 필요성

(1)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신5:31-33, 6:1, 7,

3) James Montgomery Boice, *Living by the Book*(*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조계광 역, 규장, 2010, p. 139.

11:19, 잠 22:6, 겔 3:17-21, 마 28:20, 벧후 3:18).

미국 시카고의 무디 성경신학원(Moody Bible Institute)에서 11년간 교수로 활동하였던 게리 브레드펠트(Gary Bredfeldt)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있어서도 가르치는 일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기록된 책이다.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자해 진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은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되라는 의미인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라는 소명이다. 이 구절의 요지는 전체 구절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은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방자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교육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4)]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교육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며(벧전 1:24-2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땅위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행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연구나 업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에 근거하는 삶과 사역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요일 2:17). 또한 이 성경말씀은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신 32:47),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성경기록을 마치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4) Gary Bredfeldt, *Great Leader Great Teacher(위대한 교사 위대한 리더)*, 손덕호 역, 프리셉트, 2008. p. 59.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신 32:46)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한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은 성경적 진리의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진정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전염성있는 교회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배려깊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박제된 것과 다름없는 배부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낡고 먼지 쌓인 박물관이 되고 만다. 교회가 재생산하지 못할 때 교회는 죽는다."[5]

(2) 성경교육은 주님의 주된 사역으로 선교사역의 완결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마 4:23, 7:28-29, 13:54, 28:19-20, 눅 3:24, 19:47, 21:37, 요 18:20, 행 1:1, 2:42, 5:42, 8:35, 11:26, 15:35, 18:11, 20:20, 28:31, 고전 4:17).

게리 브레드펠트(Gary Bredfeldt)는 "가르침은 대위임령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만이 리더는 아니다. 소그룹이나 일대일로도 가르칠 수 있다.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어디에서 가르치건 간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의 리더십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6]

---

5) Charles R. Swindoll, *The Church Awakening: An Urgent Call for Renewal(교회의 각성)*, 유정희 역, 두란노, 2012, p. 98.

6) Gary Bredfeldt, op. cit., p. 55.

(3) 성경교육은 모든 선한 사역을 행할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롬 15:14, 고전 1:5-7, 골 1:28, 3:16, 딤전 4:6, 딤후 2:15, 3:17, 히 5:12-14).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다른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이 책[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7]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을 사로잡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볼 수 없다. 이 세상은 칠흑처럼 어두우나 우리 안에는 빛이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고 우리 앞에서 밝히 빛나야만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찾게 한다. 또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길대로 행할 능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8] 그래서 존 맥아더(John MacArthur Jr.)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골 1:9)에 다다릅니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9]

이처럼, 성경을 접하고 가르침 받은 결과로 주어진 열매들에 대하여 토머스 카힐(Thomas Cahill)은 "성경이 없었다면 노예폐지운동, 감옥개량운동, 반전운동, 노동운동, 민권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토착민과 가난한 자들의 인권운동,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반대운동, 폴란드의 연대운동, 대한민국과 필리핀, 심지어 중국같은 극동 국가들의 언론자유와 민주화운동도 없

---

7) Thomas Watson, *A Body of Divinit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58), p. 29.
8)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p. 148-149.
9) John MacArthur Jr., *Colossians and Philemon* (Chicago: Moody, 1992), pp. 29-30.

었을 것이다. 현대의 이런 운동들은 모두 성경의 언어를 구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10)]

(4)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기 때문이다(창 18:19, 롬 12:2, 고전 2:13, 빌 1:9-10).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은 "성경을 펼쳐서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성경이 우리를 일깨우고, 놀라게 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조건대로 그 분과 관계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함을 언급하고 있다.[11)]

빌 하이벨스(Bill Hybels)는 "하나님은 친절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수히 많은 속삭임들을 우리 평생에 제공하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속삭임을 직접 귀로 듣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즉 하나님과 그 분의 성품,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온전히 알도록 보여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인생을 그럭저럭 헤쳐 나간다"라고 성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손실을 말해주고 있다.[12)]

이와 같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잘못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따르기 위해서는

---

10) Thomas Cahill, *The Gift of the Jews: How a Tribe of Desert Nomads Changed the Way Everyone Thinks and Feels* (Anchor Books: Nan A. Talese, 1999), p. 248.

11) Eugene H. Peterson, *Eat This Book: A Conversation in the Art of Spiritual Reading(이 책을 읽으라),* 양혜원 역, IVP, 2006, p. 28.

12) Bill Hybels, *The Power of a Whisper(주의 음성),* 캐런 채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1, p. 165.

성경연구와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5)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신 10:12-13, 28:1-6, 시 119:11, 36, 50, 67, 80, 92-93, 98-100, 105, 121-122, 133, 143, 153, 159, 165, 173, 잠 10:21, 22:12, 24:5, 28:2, 9, 호 4:6, 암 8:11).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완전한 길을 가르쳐 준다.[13]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온갖 재앙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되어진다(시 19:10-11, 고전 6:18, 출 20:13, 15, 16, 딤전 6:9-10, 요일 2:14, 마 4:4, 7, 10). 그러므로, 존 파이퍼(John Piper)는 "내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해결하며, 수많은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치료하며, 유혹의 순간에 수많은 죄를 죽이며, 수많은 날을 '송이꿀'로 달콤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14]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0:10).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것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우리가 떡으로 얻는 생명은 연약하고 짧지만 말씀으로 얻는 생명은 견고하며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15]

---

13) Calvin's Commentaries, Vol. 10, *Corinthians and Timothy, Titus & Philemon*, (Philadelphia: Eerdmans, 1964), p. 330.

14) John Piper, *When I Don't Desire God(말씀으로 승리하라)*, 전의우 역, IVP, 2010, p. 74.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후예로서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물려받았던 영국의 비국교도 목회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Octavius Winslow)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에 수천 배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성경을 배우고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것은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곧 다른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영광과 영예와 불멸과 영생을 제시한다. ... 그러나 정작 우리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궁금하다. 성경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6]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문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영육의 건강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것이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짐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탠리(Charles F. Stanley)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분의 진리를 마음에 두며, 그 분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형통과 성공에 꼭 필요한 일이다. 성경을 무시하거나 사양하거나 멀리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기초 없이 설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 해도,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고 말 것이다. 폭풍은 오게 마련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았다면, 그

15) Ibid., p. 19.

16) Octavius Winslow, *The Precious Things of God*(*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보배로운 선물*), 조계광 역, 지평서원, 2012, p. 234.

삶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다."[17] 칼빈(Calvin)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 주지 않으면 인간은 일평생 어둠과 안개에 휩싸여 비참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바 있다.[18]

(6) 성경교육은 마지막 때에 죄와 사단과 비 진리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을 시키는 결 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행 20:29-32, 딤전 4:1-5, 유 20-21).

게리 브레드펠트(Gary Bredfeldt)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없는 양같이 된다. 가르침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향을 잃고 굶주리게 되며,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1-2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르칠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 없이 어떻게 멸망케 할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교회가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19]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20]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경신학자

---

17) Charles F. Stanley, *10 Principles for Studying Your Bible(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 윤종석 역, 디모데, 2010, p. 94.

18) John Calvin, *A Commentary on the Psalms of David*, Vol. III (Oxford: Thomas Tegg, 1840), p. 265.

19) Gary Bredfeldt, op. cit., p. 60.

20) 여기에 '대적하다'(안시스테미)라는 단어는 "대항하다, 저항하다, 견디다, 반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키스터메이커(Simon J. Kistemaker)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믿음을 신자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의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으로 "기독교회의 가르침들" 즉 복음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21]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객관적인 믿음인 복음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마 4:1-11).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죄와 사탄을 이기게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요한 1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경신학자 알프레드 플루머(Alfred Plummer)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강함의 비밀이며 그들의 승리의 원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2]

올바른 성경 이해와 영적 무장을 위해서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제대로의 성경교육 없이 성경을 그냥 읽게 내버려 두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 주면서 '그것을 읽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자동차 열쇠 한 묶음을 청소년의 손에 쥐어 주고 자동차를 한 대 주면서 '운전해라'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기술의 작은 부분을 손에 넣고는 그것을 무식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

21) Simon J. Kistemaker,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the Epistle of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pp. 202-203.

22) Alfred Prummer, *The Epistles of John*,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serie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896), p. 49.

고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기술이 주는 권력에 도취되어 그것을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촉구할 때, '독자여 주의하라'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23]

(7) 성경교육은 사람의 제일되는 본분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시 119:62, 111, 164, 171-172, 잠 2:10, 전 12:13, 빌 1:9-11).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칼빈주의 신학자요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58)는 그의 설교 "그리스도인의 순례"(The Christian Pilgrim)에서 "하나님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최고의 선이시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단언했으며,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당신위에 세워지고, 당신에게 근거를 두고, 당신으로 인한 기쁨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바 있다.[24]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의 말이 우리 인격의 일부이듯 그 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부이다"[25]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이러한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므로 인간의 제일되는 존재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시편

---

23) Eugene H. Peterson, op. cit., pp. 142-143.

24) Alister E. McGrath, *Christianity Spirituality: An Introduction*(*기독교 영성 베이직*), 김덕천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6. pp. 169, 269.

25)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 144.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어졌고(111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고(62절), 하루에 일곱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음(164절)을 고백하고 있음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예수님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23)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라는 초대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신 것은 그의 기쁨(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요 15:11, 17:13). 그러므로 복음은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이다"라고 복음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임을 밝혀주고 있다.[26] 이와 같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제일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8)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시는 수단이 성경이기에 이 성경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진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의 개혁주의 신앙의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목회자 휴 마틴(Hugh Martin)은 "그 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바 있다(요일 2:24, 요 15:4).[27] 그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성령이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면, 복음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안에 사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복음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십니

26) John Piper, *The Pleasures of God(하나님의 기쁨)*, 이재기 역, 은성, 1994, p. 28.
27) Hugh Martin, *The Abiding Presence(그리스도의 임재)*, 황의무 역, 지평서원, 2010, p. 227.

다. 보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록된 말씀(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역시 볼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요 1:18)."[28]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며 우리의 감정을 개혁한다는 것이다"라고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29]

(9)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성경연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성경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19세기 복음으로 미국사회를 변화시켰던 칼빈주의 복음전도자요 청교도 신앙의 설교자였던 D. L. 무디는 "나는 내 성경책을 덮고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성경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30] 그래서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잘 준비한 다음, 성경을 펼쳐 그들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다.[31] 일생 동안 5만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었던 영국의 기도대장 조지 뮬러(George Muller)도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에서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영적인 면에서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

28) Ibid. pp. 225-226.

29) Sinclair B. Ferguson, *In Christ Alone(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호섭 역, 지평서원, 2012, p. 180.

30) Stanley and Patricia Gundry, *The Wit and Wisdom of D. L. Moody* (Chicago: Moody Press, 1974), p. 40.

31) Charles R. Swindoll, op. cit., p. 124.

다는 사실을 강조한바 있다.[32]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대하여, 존 맥아더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대안이나 기발한 수법이나 지름길이란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33]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갈 5:22-23)과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히 13:15)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골 1:10)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요 4:35-36)을 의미하는데,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비결은 말씀 안에 거함으로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다: "내 인생에서 구원받은 일 다음으로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오래도록 더 열렬하게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름길은 전혀 없다, 만일 자라고, 성숙하며, 마침내 변화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34]

(10)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경교육이 필수적이다(딤후 2:15).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Warren

32) George H. Guthrie, *Read the Bible for Life*(*삶을 위한 성경읽기*), 홍종락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p. 19.

33) John F. MacArthur, Jr., *How to Get the Most From God's Word*(*성경, 이렇게 믿어라*), 김태곤 역, 생명의 말씀사, 2000, p. 213.

34) Ibid., p. 203.

W. Wiersbe)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게 된 특권을 얻은 나의 경험과 그리스도인 일대기에 대한 나의 연구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분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35)]

존 파이퍼(John Piper)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자연적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데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영적인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잠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존 번연과 같지 않은가? 혹시 그들을 찌른다면 성경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36)] 따라서, "성경을 진지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섭취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성형성이 있을 수 없다. 책임있게 성경을 읽고 그 내용에 반응하는 일은 제자훈련의 핵심 커리큘럼이다."[37)]

---

35) Warren W. Wiersbe, *On Being a Servant of God(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최용수 역, CLC, 2012, p. 263.

36) John Piper, *When I Don't Desire God(말씀으로 승리하라)*, 전의우 역, IVP, 2010, pp. 41, 68.

37) Dallas Willard, *제자도와 영성형성(The kingdom Life)*, 홍병룡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0, p. 347.

3. 성경의 독특한 역할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변화의 능력을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진리를 계시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1) 성경은 구원을 위한 가르침을 제공한다(딤후 3:15)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의 원천이다(시 19:7, 막 4:14-20, 요 3:16, 5:24, 39, 행 16:31, 롬 1:16-17, 10:9-10, 17, 약 1:18). "말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결합하고 성령에 의해 역사되어질 때 영적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38] 본문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구원의 원천과 수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구원의 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600년 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키릴(Cyril of Jerusalem)은 "성경이 없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비밀이 단 하나도 전해질 수 없다. 매혹적인 말과 교묘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 성경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선뜻 믿지 말라. 우리가 믿는 구원은 교묘한 추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의 원천임을 분명히 언급하였다.[39]

---

38) John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95), p. 138.

39) Don Kistler, ed., *Sola Scriptura: The Protestant Position on the Bible(오직 성경으로)*, 조계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안내서이다. 성경의 목적은 인간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주의 탐험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실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다.[40] 미국의 개혁주의 설교자 리처드 필립스(Richard D. Phillips)는 “성경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성경의 목적은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개인에게 그 구원을 실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라고 성경기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41]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Octavius Winslow)는 “성경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42]

“딤후 3:15-17절까지의 본문은 구약성경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그를 신뢰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속을 베푸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 구약의 제사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으며 죄는 죽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옛 언약 하에서 행해진 모든 제사들은 오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를 묘사하

광 역, 지평서원, 2011, p. 53.

40) John R. W. Stott, *Guard the Gospel: The Message of 2 Timothy*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3), p. 103.

41) Richard D. Phillips, *Hebrews(히브리서)*, 전광규 역, 부흥과 개혁사, 2010, p. 243. 리차드 필립스는 그의 주석 p. 246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구원의 역사의 구체적인 예로서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톤의 예를 들고 있다.

42) Octavius Winslow, op. cit., p. 235.

고 있었다(히 7:27, 9:11-12).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도 구원은 장차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희생제사에 근거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었다."[43]

어떤 율법사 즉 한 서기관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생에 관한 진리의 원천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눅 10:25-26).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는 항상 성령에 이끌린 진정한 구도자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롬 3;19-28, 10:9-10, 엡 2:8-9).

주님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요 5:37-39). 이것은 구약성경이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믿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낙담과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을 때(눅 24:27), 두 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43) John MacArthur, Jr. op. cit., pp. 138-139.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라고 고백하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은 예수님처럼 제대로의 성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증거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갈 3:24)고 언급한 바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엡 2:5)에 의한 것임을 천명하면서, 이 구원은 1) 죄로부터의 구원이며(엡 2:1-3), 2)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며(엡 2:4), 3)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고(엡 2:5),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며(엡 2:6-7), 5) 믿음을 통한 구원이고(엡 2:8-9), 6) 선한 행위를 낳는 구원(엡 2:10)임을 밝혀주고 있다.

(2) 성경은 성화를 위한 가르침을 제공한다(딤후 3:16-17)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시 19:7).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유익하니"라는 언급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충족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유익하다"는 단어는 "이익이 있는, 생산적인,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44]

성경의 성화적인 역할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든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어떤 불완전함이나 결점이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

44) Ibid., p. 152.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즉 성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 Boice)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죄를 멀리하며, 올바른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고자 한다면, 진지한 말씀의 학도가 되어야 한다. ... 성령님이 성경을 도구삼아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나게 하고, 깨우치고, 능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45)]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성경의 절대적인 충족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을 깨달으면서 그가 쓴 시편 19편 7절에서 13절까지에서 노래하고 있다. 특히 7절에서 9절까지 그는 말씀을 6가지 다른 명칭(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즉, (1) 완전하여(perfect), (2) 확실하여(trustworthy), (3) 정직하여(right), (4) 순결하여(radiant), (5) 정결하여(pure), (6) 진실하여(sure) 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삶에 가져다주는 6가지 축복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그 말씀은 (1) 영혼을 소성케하고, (2)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3) 마음을 기쁘게 하고, (4) 눈을 밝게 하며, (5) 영원까지 이르며, (6) 완전한 의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6가지 유익들을 찬양하고 있다. 즉 (1) 부유하게 하고, (2) 기쁘게 하고, (3) 경고를 받게 하고, (4) 보상을 받게 하고, (5) 깨닫게 하고, (6)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

45)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p. 6, 124.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어지기를 간구하신 후에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성화를 가져오는 복된 도구가 되어짐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고와 책망과 격려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경시하고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죄를 이기고 온전한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시 119:9-11, 요일 2:14).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 Boice)는 "거룩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성경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46]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 주된 지침의 역할을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낡고 부패한 것을 모두 뜯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롭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리모델링한다(롬 13:11-14, 엡 4:20-25, 골 3:8-11)."[47]

그래서 영국 최초의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은 "이 시대에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그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잡았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사람은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48]

미국의 설교자 찰스 스탠리는 "당신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매주 당신의 마음속에 성경을 넣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빚어 뭔가 완전히

---

46) James M. Boice,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ional Commentary(요한복음 강해)*, IV, 서문강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88, p. 587.

47) Dallas Willard, op. cit., p. 339.

48) 배창돈, *기적의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원, 2008. p. 125.

놀라운 것을 만들어 내신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 들인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 분은 당신이 가능할 줄로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들로 당신을 쓰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한다. 당신과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변화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49]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성품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방편은 1)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요 15:3, 행 20:32, 딤후 3:16-17, 벧전 1:22, 2:2, 요일 2:3, 5). 2) 기도(시 105:3, 요 16:24, 행 2:1-4, 4:24-33, 빌 4:6-7, 골 4:12-13). 3) 시험(약 1:2-4, 벧전 1:6-7). 4) 고난(요 15:2, 고후 1:4-5, 빌 3:10, 벧전 5:10). 5) 사랑(엡 3:17-19, 4:15-16, 5:1-2, 요일 4:17), 6) 교제(롬 1:11-12, 16:3-16, 21-23, 고전 12:18-27, 엡 4:16, 몬 1:6). 7) 전도(마 28:19-20, 눅 10:17, 행 13:52), 8) 예배(시 73:17, 고후 3:18, 계 1:10) 등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4. 성경의 독특한 권위

(1) 영감되고 오류없는 성경(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특별계시이고 그 전달의 방편이 바로 영감이다. "영감은 신구약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작용한 성령의 역사다."[50] 그러므로 성경

49) Charles F. Stanley, op. cit., pp. 99-100.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어넣어졌다(breathed out by God)”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받아쓰게 하실 정도로 인간 저자들에게 자신의 말씀들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렘 1:9)고 말씀하신 것과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삼하 23:2)라고 증언한 것이 이런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실례이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 도구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감정들을 통하여 흘러내리도록 간섭하였던 것을 시편같은 말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이다.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학장이며 조직신학 교수인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 일점일획까지 친히 감독하지 않으셨다면(마 5:18 참고), 우리는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권위있게 선언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한 치도 틀림없는 진리라는 데 대해 확신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51]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

---

50) John F. MacArthur, Jr., *How to Get the Most From God’s Word(성경, 이렇게 믿어라)*, 김태곤 역, 생명의 말씀사, 2000, p. 38.

51) Don Kistler, ed., *Sola Scriptura: The Protestant Position on the Bible(오직 성경으로)*, 조계광 역, 지평서원, 2011, pp. 195-196.

님에 의해 영감되지 아니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맥아더는 "성경은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아계시이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진리와 그의 성품, 그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의 거룩한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 지혜나 인간의 통찰력의 모음집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52)]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따라서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먼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성경의 어떤 메시지도 사람들 자신의 지혜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되고 기록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 경건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신적으로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진 것이다.

"모든 성경(graphe)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언급 중 모든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까지를 포함하는 명칭이다.[53)] 디모데전서

52) John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95), p. 143.

5장 18절에 “성경(graphe)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는 말씀 가운데 앞 부분은 구약 신명기 25장 4절로부터의 인용이고, 뒷 부분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직접하신 말씀의 인용으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성경에 일렀으되”는 신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마지막 서신인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graphas)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동안에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주셨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요 10:35)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신바가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All your words are true; all your righteous laws are eternal)”라고 말씀하고 있다.

찰스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53) 본문 16절에서의 모든 성경(*pasa graphe*)은 신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반면, 본문 15절의 성경(*hiera grammata*)은 구약성경을 가리킨다. John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95), pp. 138, 144. George W. Knight III,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p. 448 을 참고하라.

이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항상 진리였으며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도 늘 변함없는 진리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진리였고, 심지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전부터 진리였다. ... 성경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이 진리이고, 모세오경 역시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는 오자 정정 표기를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취소할 내용, 곧 수정하거나 바꿔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54]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적어도 680번 정도 신적 영감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역사서에서는 418번, 시가서에서는 195번, 선지서에서는 1307번 정도 발견되어진다.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300회 이상 직접 인용을 하고 있고 간접 인용은 1000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에서 그 인용구절들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거나 함축하고 있다.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이라는 부분은 구약성경을 가리키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부분은 신약성경을 의미하는 표현이다.”[55]

유다서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3)는 권면을 하고 있다. 여기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언급은 성경의 완전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더 이상의 보완이나 보충

54)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 201.
55) John MacArthur, Jr. op. cit., p. 146.

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계시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20)고 경고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절구절마다 판단하게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기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이 완전하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며, 따라서 인간 삶에 절대적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헨리 스미스(Henry Smith)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고, 말씀이 권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말씀이 금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말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56] 존 맥아더 역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 권위다. 그것은 무흠하고 무오하며, 또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최후의 결정이다"라고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57]

---

56) Don Kistler, ed., op. cit., p. 243.

57) John F. MacArthur, Jr., *How to Get the Most From God's Word*(*성경, 이렇게 믿어라*), 김태곤 역, 생명의 말씀사, 2000, p. 91.

5. 성경의 사역

앞서 설명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모든 진리, 모든 원리, 모든 기준, 그리고 모든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4가지 영역(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서 유익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경신학자 윌리엄 D. 바운스(William D. Bounce)는 성경의 4가지 사역에 대하여 처음 두 사역인 교훈과 책망은 올바른 교리(orthodoxy)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두 사역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올바른 실천(orthopraxy)에 대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본문의 4개의 전치사 구들은 구조상 교차대구법적임을 밝히면서 "(a) 성경은 교리를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b) 이단을 정죄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b') 부적절한 행위를 교정하고 (a') 긍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교육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58]

(1) 교훈의 사역: 가르치는 성경(딤후 3:16)

본문에서의 "교훈(*didaskalia*)"은 가르침(teaching)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를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가르침 혹은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다.[59]

---

58) William D. Bounce, *Word Biblical Commentary: Pastoral Epistles(목회서신)*, Vol. 46. 채천석, 이덕신 역, 솔로몬, 2009, p. 1075

59) John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Timothy* (Chicago:

"주의 교훈과 훈계"(엡 6:4) 가운데서 자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제공해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를 제공받고 안내를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오류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나 온전히 사역할 수 있거나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 회심 후에 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의 지혜에 대한 신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진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는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다. ... 영적인 진리를 알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가르침 받지 못한 신자들과 특별히 성경적으로 가르쳐지지 못한 교회에 있는 자들은 거짓교사들에게 쉬운 먹이감이 되고 만다.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들로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되어지는 것이다(엡 4:14). 하나님은 오늘날도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서와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 4:6)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60]

Moody Press, 1995), p. 154.

이 교훈의 사역의 목표에 대하여 제이 E. 아담스는 "성경에서 모든 교훈의 목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성경의 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진리가 아닌 단지 알아야 할 사실로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61]

미국의 설교자 찰스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역경들을 만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비극이 닥친다. 슬픔이 쌓인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끈다. 좌절이 우리를 유혹하여 포기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신 일을 등지게 한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다. 그런 길로 가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라. 그 분의 진리를 공부하라.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러면 낙심이 찾아올 때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사 30:21)이다."[62]

성경의 교훈적 사역에 관하여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교훈적 사역의 결과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제이 E. 아담스의 설명대로 "소망은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빛을 비추실 때 피어난다."[63]

---

60) Ibid., p. 155.

61) Jay E. Adams, *How To Help People Change(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힘)*, 송용자 역, 부흥과 개혁사, 2009, p. 158.

62) Charles F. Stanley, op. cit., pp. 73-74.

63) Jay E. Adams, op. cit., p. 124.

따라서, 제대로의 교훈을 위해서는 성경의 사용이 정확해야 하며 그 상황에 적절해야만 한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과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이 기록된 성경과는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하셨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록된 구약성경에서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답변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시험이나 속임수에 대하여 사용해야 할 영적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권면했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딤후 2:15).

(2) 책망의 사역: 책망하는 성경(딤후 3:16)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사역은 책망(reproof)의 사역이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잘못된 행위와 거짓된 교리를 깨우치기 위한 꾸짖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64] "책망은 누군가에게 그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고 회개로 부르는 것을 뜻한다."[65]

"교훈"(딤후 3:16)과 함께 "책망의 사역은 거짓과 죄와 잘못된 믿음과 불경건한 행위를 드러내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로서

64) Thomas D. Lea and Hayne P. Griffin, J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 2 Timothy, Titus*, Vol. 34.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2), p. 237.
65) Jay E. Adams, op. cit., p. 201.

신자들을 구비시키는 사역의 일부이다."[66] "책망은 행동을 다르게 하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우리가 일부러 무시하는 부분들을 드러내 꾸짖어준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안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신다."[67] "규칙적이고 주의 깊은 성경 연구는 무엇보다도 교정과 자백과, 거절, 그리고 순종을 가져올 목적으로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진리의 기초를 형성한다."[68]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고 성경을 신자의 삶 속의 죄를 드러내는 거룩한 검으로 말하고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히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전 삶을 꿰뚫는다. 성령의 조명으로 읽는 말씀의 특정 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날카롭게 그리고 깊이 관통하는 말씀의 책망을 듣게 되어진다. 따라서 성경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약 2:9).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들어지는 것은 고백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 죄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존 맥아더는 "성경은 옳고 참된 것을 세우고 증진시키는 사역뿐만 아니라 죄악되고 거짓된 것들을 찢고 멸하는 부정적인 사역 또한 가지고 있다. 의학에서처럼, 감염과 오염은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제거되어져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 행함을 책망

---

66) John MacArthur, Jr. op. cit., p. 157.

67) Charles R. Swindoll, *Swindoll's New Testament Insights on 1 & 2 Timothy, Titus(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윤종석 역, 디모데, 2012, p. 292.

68) John MacArthur, Jr. op. cit., p. 158.

하는 것은 그들을 의로 세우는 것을 돕는 것 못지않게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69]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언급(딤후 3:15-17)에 이어 디모데후서 4장 1정과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경책, 경계, 권함) 가운데 "경책하다"는 단어는 바로 본문의 "책망"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책망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딤전 5:20, 딛 1:9). 제이 E. 아담스는 "사역자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책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70]

"성경은 모든 생각, 원리, 행위, 그리고 믿음이 측정되어지는 측량줄이다."[71]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에서 떠나게 하고 의를 향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책망하는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스스로 지켜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책망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딛 1:9). 더 나아가, 말씀의 사역자가 책망을 해야 할 때, 겸손과 사랑으로 해야만 한다(고전 4:14). 주님께서 그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사랑 가운데서 하신다고 할 때(히 12:5-11), 그의 자녀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책망할 때 더 더욱이 겸손과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이 E. 아담스는 "오류투성이인 회심자들에게 바울은 마음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을 거의

69) Ibid.
70) Jay E. Adams, op. cit., p. 191.
71) John MacArthur, Jr. op. cit., p. 159.

하지 않는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눈물로 젖어 있다. 바울은 분명하게 썼다. 그러나 결코 우월감이나 권위의식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항상 온유함으로 말했다. 바울의 말은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임기응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72]

이러한 책망은 죄로 인하여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사 59:1-2, 잠 6:23, 히 12:8-10).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격려하는 사역과 마찬가지로 책망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감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의와 사랑과 진리를 참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바르게 함의 사역: 교정시키는 성경(딤후 3:16)

"바르게 함(correc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원래의 그리고 적절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혹은 무언가를 다시 서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73] 바르게 함은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이나 개혁을 뜻한다.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 준다면, 바르게 함은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을 보여준다."[74] "만일에 책망이 부정적인 방법이라면, 뒤따르는 바르게 함의 사역은 회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방법이다."[75]

"세속 헬라문헌에서 이 단어는 떨어진 어떤 대상을 바르게 놓는 것과 어떤 사람이 넘어진 후에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

72) Jay E. Adams, op. cit., p. 236.
73)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0.
74) Charles R. Swindoll, op. cit., p. 292.
75) Philip H.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Grand Rapids: Eerdmans, 2006), p. 591.

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신자들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과 죄악된 행위가 드러난 후에 성경이 거룩한 교정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76] 그러므로, 이 단어는 수리(repairing), 교정(correcting), 회복(restoring), 재건(rebuilding)을 뜻하며, 사람에게 사용되어 개선을 위한 변화를 암시한다.[77]

"바르게 함은 성경의 부정적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이다."[78]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고 말씀하고 있다.

제이 E. 아담스는 성경의 바르게 함의 사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르게 함은 변화의 핵심적인 단계이다. 바르게 함의 단계에서 생각과 삶이 비성경적인 방식에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생각을 따라오는 죄악된 삶에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동하는 데 유익하다. 바르게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먼지를 털어 내고 방향을 돌려 올바를 방향으로 가도록 밀어 주는 것이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이다."[79]

구약의 시인은 기록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시 119:9-11).

---

76)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0.
77) Raymond F. Collins, *The New Testament Library: 1 & 2 Timothy and Titu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p. 264.
78)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0.
79) Jay E. Adams, op. cit., p. 255.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고 말씀의 바르게 함의 효력을 확신 가운데서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질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교정을 통하여 가장 강한 부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 15:1-2)라고 말씀 그대로,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 대한 봉사에 있어서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된 것들뿐만 아니라 무익한 것들까지 제거하셔야만 한다.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찌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져가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로부터 시간과 주의와 노력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정이 때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히 12:11). ... '책망'(딤후 3:16)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과 교사들이 이 말씀의 바르게 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딤후 2:25).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고 권면하고 있다. 엄청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욥 17:9)고 확신 가운데서 말한바 있다.[80]

따라서 세례요한이 자신의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자 했던 자들에게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사역대상자들이 죄를 버리고 돌이킴으로 그들을 교정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눅 3:8-14).

(4) 의를 위하여 훈련시키는 사역: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성경(딤후 3:16)

딤후 3:16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 가운데 "교육"으로 번역되어진 *"paideia"* 라는 단어는 "원래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81] 이 단어는 원래 "교화(civilization)에 이르는 절제(self-control), 경건(piety), 올바름(uprightness), 진지함(seriousness)의 덕들을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82]

성경에서 이 단어는 "훈계"(딤후 2:25), "교훈"(엡 6:4), "징계하심"(히 12:5), "징계"(히 12:7, 11)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도덕적 훈련(moral training that leads to righteous living)"을 성경이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83] 즉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성장이 있는 성화의

---

80)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0.

81)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1. '파이데이아'는 목회서신에서 4번 나타나는데, 2번은 대적자들을 바르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딤전 1:20, 딤후 2:25), 다른 2번은 경건한 삶(딛 2:12)과 의(딤후 3:16)의 훈련(딛 2:1)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William D. Bounce, op. cit., p. 841.

82) Philip H. Towner, op. cit., p. 591.

83) Thomas D. Lea and Hayne P. Griffin, Jr., op. cit., p. 237.

자리에 나아가도록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훈련(training)"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교육과 세움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로서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84] 왜냐하면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적극적인 삶의 패턴을 확립하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엡 4:21-24, 골 3:1-25). 상담신학자 제이 E. 아담스는 "습관은 우리로 무언가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동적으로 능숙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85]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켜 가는데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다.[86]

본문에서의 "의(디카이오쉬네)"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칭의의 의"(롬 3:22, 4:3-4, 10:3)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의"이다(고후 3:18).[87] "칭의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할 때 선포되는 의에 대한 선언이 즉각적이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84) 성경적 상담학의 창시자인 제이 E. 아담스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4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Jay E. Adams, op. cit., p. 338.

85) Jay E. Adams, op. cit., p. 335.

86) "습관" 혹은 "삶의 방식"에 대한 성경적인 언급은 고전 8:7, 엡 4:22, 히 5:14, 10:25 등을 참고하라.

87) Raymond F. Collins는 본문에서의 의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op. cit., p. 265. George W. Knight III는 본문의 의는 "올바른 행위"(right conduct)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p. 449.

행위인 반면, 성화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를 빚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이다."[88] 그래서 켄트 휴즈(R. Kent Hughes)와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믿음에 의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에 의해 실현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89] 그러므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로 교육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롬 12:1).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고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임스 M. 몽고메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나 인생의 많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며 성경을 익히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9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교육받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88) Jay E. Adams, op. cit., p. 309.

89) R. Kent Hughes and Bryan Chapell, *Preaching The Word: 1-2 Timothy and Titus*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2), p. 261.

90)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 193.

6. 성경교육의 목표: 선한 사역을 위한 온전한 구비(딤후 3:17)

성경 영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구비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계시하는 구주와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교사와 설교자들을 위한 성경의 특별한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오직 디모데에게만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딤전 6:11).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와 모든 크리스천 리더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91] 에드먼드 히버트(D. Edmond Hiebert)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공적인 칭호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말씀과 관련한 사역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91) William D. Bounce, op. cit., p. 1077.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자,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자, 성경으로 사역하는 자로서 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op. cit., p. 97. William Hendriksen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신자"를 뜻하는 단어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의 직분을 부여받았기에 이 호칭이 주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 *New Testament Commentary: 1 & 2 Timothy and Titu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7), p. 303. John R. W. Stott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op. cit., p. 103.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의 사역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92]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히 구비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완전한, 유능한, 철저하게 구비된"이라는 의미로서[93] "그들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고 능하며 유능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94] 즉 요구되어지는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훈련과 전문기술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너희도 그[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you have been made complete)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한바 있다(골 2:10). 성경의 진리들을 주의깊게 연구하며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말씀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실천하고 변호하는 일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를 온전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여기서 온전함은 기술 이상의 것이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훈련하는 일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 온전함을 이룬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고통과 좌절을 수반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말해 준다. 우리가 길을 벗어날 때, 성경은 그것이 잘못임을 알려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되돌려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 곧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해주는 새로운 생각을 품는 훈련을 하라고 격려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기

---

92) D. Edmond Hiebert, *Everyman's Bible Commentary: Second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8), p. 102.
93) William D. Bounce, op. cit., p. 1077.
94)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2.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분이 세상을 보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분이 느꼈던 대로 느낄 수도 있다.[95]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96]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삶과 주님께 대한 신실한 봉사를 위하여 구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 구비되어질 때 그는 그의 보살핌 하에 있는 신자들을 구비시킬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신자들은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97]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엡 2:10, 딛 3:1, 딤후 2:21),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각 상황 속에서 요청되어지는 그 특정한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성경을 주셨다."[9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되어져야 한다(엡 2:10).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신자들은 구비되어져야 한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찰스 R. 스윈돌(Charles R. Swindoll)

---

95) Dallas Willard, op. cit., p. 138.

96)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온전히 구비되어 진다"(having been fully equipped)는 의미이다.

97)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2.

98) George W. Knight III,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p. 450.

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신은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도 바울과 함께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시간만 허비하는 활동들일랑 그만두고 성경교육을 받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라. 이렇게 다 하면 당신의 끝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성경연구와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99]

제임스 M. 보이스(James M. Boice)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경공부는 이따금 시간이 있을 때 하거나 휴가 기간에 조금 해도 되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성경공부는 신앙생활의 열정을 모두 기울여야 할 중대 사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매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 성경을 규칙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 경우,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결과가 빚어질 뿐 아니라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쉽게 죄를 짓게 된다.”[100]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역을 위한 구비에 있어서 성경이 부족함이 없고 충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돈 키슬러(Don Kisler)는 “설령 성경이 믿음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 곧 성경이 충족성을 증언하는 가르침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분과 관련된 것도 모두 온전히 충분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그 분의 백성에게 단 한 가지도

99) Charles R. Swindoll, op. cit., p. 294.
100)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p. 204-205.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01] 결론적으로,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우리의 목적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든, 교회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든, 잘못된 신자들을 교정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든, 신자들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든, 우리의 사역의 최상의 그리고 충족한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칠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진리의 모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러한 근본 진리를 잊어버렸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있는 각 교회는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행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하며, 그리해서 그 말씀을 계시하신 은혜로우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일 수 있어야만 한다. 성령의 확신시키고 책망하는 능력을 통하여,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또한 이 세대의 삶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구비되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 진리와 도덕적 원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대비책이다(마 25:21).[102]

---

101) Don Kistler, ed., op. cit., p. 246.
102) John MacArthur, Jr. op. cit., p. 163.

7. 결론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학장인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현대인은 불행과 불안과 우울과 절망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날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영혼은 어두운 시대, 곧 영적 빈곤과 죽음의 시대이다. 현재 미술과 음악과 문학과 철학에서 발견되는 공허함과 황폐함과 추함은 현대와 현대 이후 시대의 인간이 처한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황폐하고 쇠락한 이 시대에 성경적인 기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윤리를 외면하는 문화적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103]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성경적인 기독교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성경교육을 회복하는 데 있다.

게리 브레드펠트(Gary Breadfeldt)는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도 중요하고, 사명을 외치는 것도 유익하고, 목적이 이끄는 전략도 교회의 수적 성장에 매우 귀중할 수 있지만 만일 그 가운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핵심 과제가 없다면 교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칠 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04] 오늘날 미국교계에서 복음중심의 삶과 목회와 저술로 주목받고 있는 제라드 C. 윌슨((Jared C. Wilson) 목사는 북미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그 동안 해오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찾는 가운데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일등급 촉매제는 다름 아닌 성경공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소개

103) Don Kistler, ed., op. cit., p. 237.
104) Gary Bredfeldt, op. cit., p. 15.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만든다. 당신의 교회에 성경공부가 홍수를 이루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한바 있다.[105] 미국 덴버 신학교의 마크 영(Mark Young) 총장 역시 “많은 젊은 세대들이 화려한 사역만 추구하는 대형 교회와 스타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06]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하고(골 3:16), 동시에 하나님의 무진장의 진리를 계속하여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딛 2:3). 왜냐하면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딤전 4:6). 또한 욥과 같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Teach me what I cannot see)”라고 기도해야 한다(욥 34:32). 욥은 그의 자녀와 종들과 가축들과 건강과 자신의 명성까지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소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를 알고 싶으면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107]

이 시대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무장과 마지막 무장이 바로 말씀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삶과 사역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

---

105) Jared C. Wilson, *Gospel Wakefulness(복음에 눈뜨다)*, 안정임 역, 예수전도단, 2013, p. 299.

106) 국민일보, 2013년 7월 30일자,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인터뷰기사.

107) James Montgomery Boice, op. cit., p. 49.

에 있어서 승리와 결실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성경교사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0, 27)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므로 말씀 양육사역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골 1:28-29, 딤전 4:13).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사역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에 저장해 나가야 하는 영적 재산이다. 은행 구좌에 저축되어진 돈과 같이, 저장되어진 거룩한 진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직면할 때나 도적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나,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인도를 구할 때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재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골 3:16).

“오늘날 이토록 기독교회가 성장한 시기에도 권면이나 교훈이 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의 동인이 되는 성경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권면도 받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는다. 권면과 교훈이 거절되면 어느덧 기독교회는 쇠약해지고 만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108]

결론적으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 7:10)는 이러한 결심이 오늘날의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결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나라 확장과 복음사역에 놀라운 진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딤후 2:2).

---

108) 조병수, *리더가 리더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합신대학원출판부, 2010, p. 250.

참고문헌

Adams, Jay E. *How To Help People Change(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힘)*. 송용자 역. 부흥과 개혁사, 2009.

Boice, James Montgomery.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ional Commentary(요한복음 강해)*. IV. 서문강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88.

_____. *Living by the Book(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조계광 역. 규장, 2010.

Bounce, William D. *Word Biblical Commentary: Pastoral Epistles(목회서신)*. Vol. 46. 채천석, 이덕신 역. 솔로몬, 2009.

Bredfeldt, Gary. *Great Leader Great Teacher(위대한 교사 위대한 리더)*. 손덕호 역. 프리셉트, 2008.

Cahill, Thomas. *The Gift of the Jews: How a Tribe of Desert Nomads Changed the Way Everyone Thinks and Feels*. Anchor Books: Nan A. Talese, 1999.

Calvin, John. *A Commentary on the Psalms of David*, Vol. III. Oxford: Thomas Tegg, 1840.

_____. Calvin's Commentaries, Vol. 10. *Corinthians and Timothy, Titus & Philemon*. Philadelphia: Eerdmans, 1964.

Collins, Raymond F. *The New Testament Library: 1 & 2 Timothy and Titu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Ferguson, Sinclair B. *In Christ Alone(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호섭 역. 지평서원, 2012.

Gundry, Stanley and Patricia. *The Wit and Wisdom of D. L. Moody*. Chicago: Moody Press, 1974.

Guthrie, George H. *Read the Bible for Life(삶을 위한 성경읽기)*. 홍종락 역.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3.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1 & 2 Timothy and Titu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7.

Hiebert, D. Edmond. *Everyman's Bible Commentary: Second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8.

Hybels, Bill. *The Power of a Whisper(주의 음성).* 캐런 채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1.

Hughes, R. Kent, and Bryan Chapell. *Preaching The Word: 1-2 Timothy and Titus.*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2.

Kistemaker, Simon J.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the Epistle of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Kistler, Don. ed. *Sola Scriptura: The Protestant Position on the Bible(오직 성경으로).* 조계광 역. 지평서원, 2011.

Knight III, George W.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Lea, Thomas D., and Hayne P. Griffin, J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 2 Timothy, Titus.* Vol. 34.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2.

MacArthur Jr, John. *Colossians and Philemon.* Chicago: Moody, 1992.

_____.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95.

_____. *How to Get the Most From God's Word(성경, 이렇게 믿어라).* 김태곤 역. 생명의 말씀사, 2000.

Martin, Hugh. *The Abiding Presence(그리스도의 임재).* 황의무 역. 지평서원, 2010.

McGrath, Alister E. *Christianity Spirituality: An Introduction(기독교 영성 베이*

직). 김덕천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6.

Peterson, Eugene H. *Eat This Book: A Conversation in the Art of Spiritual Reading*(*이 책을 읽으라*). 양혜원 역. IVP, 2006.

Phillips, Richard D. *Hebrews*(*히브리서*). 전광규 역. 부흥과 개혁사, 2010.

Piper, John. *The Pleasures of God*(*하나님의 기쁨*). 이재기 역. 은성, 1994.

_____. *When I Don't Desire God*(*말씀으로 승리하라*). 전의우 역. IVP, 2010.

Prummer, Alfred. *The Epistles of John*. Cambridge Greek Testament for Schools and Colleges serie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896.

Stanley, Charles F. *10 Principles for Studying Your Bible*(*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 윤종석 역. 디모데, 2010.

Stott, John R. W. *Guard the Gospel: The Message of 2 Timothy*.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3.

Swindoll, Charles R. *Swindoll's New Testament Insights on 1 & 2 Timothy, Titus*(*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윤종석 역. 디모데, 2012.

_____. *The Church Awakening: An Urgent Call for Renewal*(*교회의 각성*). 유정희 역. 두란노, 2012.

Towner, Philip H.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Grand Rapids: Eerdmans, 2006.

Watson, Thomas. *A Body of Divinit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58.

Wiersbe, Warren W. *On Being a Servant of God*(*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최용수 역. CLC, 2012.

Willard, Dallas. *The kingdom Life*(*제자도와 영성형성*). 홍병룡 역. 국제제자훈련원, 2010.

Wilson, Jared C. *Gospel Wakefulness*(*복음에 눈뜨다*), 안정임 역, 예수전도단, 2013.

Winslow, Octavius. *The Precious Things of God*(*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보배로운 선물*). 조계광 역. 지평서원, 2012.

국민일보, 2013년 7월 30일자,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인터뷰 기사.
배창돈. *기적의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원, 2008.
조병수. *리더가 리더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합신대학원출판부, 2010.